

은행 신용대출 '사상 최대' 폭증, 왜?

한은 "자금의 용도 명확히 알 수 없어"...여러 분석만 제기 장기연휴에 소비 늘어난 영향...정부 규제 '풍선효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등으로 손쉽게 대출 늘어난 원인도

지난해 정부의 잦은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였으나 은행 신용대출은 나홀로 폭주해 잇달ان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부터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에 손을 벌린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한 해 21조6000억원(12.3%) 증가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중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전년 증가액(33조7000억원)보다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약 30%(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신용

대출은 주로 고신용·고소득 차주가 이용하는 대출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수요가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 21조8000억원과도 맞먹는 수준을 보이며 폭증했다.

왜 그런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한은에서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통계를 집계한 건이지만, 대출 자금 목적까지는 따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 폭증한 배경을 놓고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먼저 소비가 늘면서 카드값 결제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낀 징검다리 연휴, 10월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 등 장기 연휴가 유난히 많았다는 분석에서다. 통상 연휴 기간 동안 외식비나 여행비, 가족 용돈·선물 등의 지출로 연휴 전후로 미어느스 통장 등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다.

한은 문소상 금융통계팀장은 "자금의 용도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민간 소비가 양호해지면서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지난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 일부 차주들이 일부 주·분양매수 증대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시 전역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40%로 강화한 바 있다. 올 초부터는 한층 강화된 신(DTI)과 DSR(총채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전에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때 마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곳의 대

출이 증가한 만큼 이번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 이사 비용 등 부대비용 수요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규 대출 때 모든 채무 상황을 따지는 신DSR이 다음달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수요도 꺾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가상통화 투기 열풍 등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한층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케이뱅크, 7월 카카오뱅크가 잇따라 출범했는데 모두 정부의 대출 규제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낮아진 문턱에 대출 수요가 물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은 지난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나온 자금이 가상통화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 관계자는 "실형 누군가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자금사용 목적 등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포수협이 21일 김청룡 조합장과 문소하 국회의원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종로구에 카페와 상호금융 영업점을 결합한 독립문지점을 마련하고 개점식을 갖고 있다.

목포수협, 서울 독립문지점 개점

특판 상품도 출시

목포수협은 서울시 종로구에 카페와 상호금융 영업점을 결합한 독립문지점을 마련하고 21일 개점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목포수협은 독립문지점 개점을 기념해 이 달 한달간 수도권 최고 금리 수준인 연 2.528% 예탁금과 연 3.7%의 '바다야 고맙다' 자유적금 등 특판 상품을 출시했다.

연 2.528% 예탁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만 64세 이상, 5000만원)이 주어진다.

또 바다야 고맙다 Sh적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예적금 상품으로 '그린체크 카드' 신규 발급 시 기준금리 연 2.2%에 0.6%p가 가산되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 독립문지점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지역 특산품인 돌김과 합초소금 그리고 화장지 등의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목포수협은 독립문지점을 찾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장을 고객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원목과 적벽돌, 스틸로 디자인했다.

또 금융 창구 공간은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형태로 구성하고 고객 대기 장소 및 의사, 필경대 등을 통해 공간을 재창조했다.

김청룡 조합장은 "목포수협 상호금융 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독립문지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랑방 역할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빙그레, 오디맛우유 출시

'시즌 한정판' 차례로 선보여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시즌 한정판 신제품을 차례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나나맛우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단지 모양의 용기에 지금까지 가공유로 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맛을 우유로 '세상에 없던 우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오디맛우유다. 오디맛우유는 베리류의 상큼한 맛과 우유의 부드러운 맛을 조화시켜 새로운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빙그레는 '세상에 없던 우유' 신제품을 한정 기간 판매할 예정이다. 오디맛우유 역시 오는 6월까지만 판매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한정판 우유를 선보인다. 연구소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두 번째 제품을 개발하는 중이다.



뉴스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26일 접수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 상환능력 無 대상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에서 최종구(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 양혁승(오른쪽 다섯번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법인이 22일 출범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범식에 참석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

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8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친 뒤 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력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며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인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50억원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정리 종료까지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뉴스스

광주·전남 1월 수출 18.3% 증가

광주와 전남지역 1월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 호조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1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한 12억6000만 달러, 전남은 17.5% 증가한 33억2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광주는 7억3200만 달러, 전남은 4억4000만 달러 등 총 11억7200만 달러를 시현했다.

올해 1월 들어 두 자릿수로 증

가한 광주지역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고무제품, 건전지, 축전지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냉장고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 호조로 불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도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1.8% 증가한 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1월 수출은 지난해 5월 두 자릿수(19.8%)로 올라선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연말 소폭 적자에 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됐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